

## Defying seriousness and solemnity: EAM (electro-acoustic music) concert in the club

Shin, Jee Soo

Amongst the flood of concerts during the autumn season of Seoul music scene, a concert of electro-acoustic music in a club in Hongdae stood out to be a unique experience for contemporary music enthusiasts. As the concert was literally in a club, the members of audience had to go through the usual procedures of going into an underground club. Also the atmosphere, thanks to many jokes and bottles of beer distributed throughout the performance, was more that of a friendly gathering than of a serious concert venue.

The challenges of communicating with the general public using the tools of contemporary classical music could be overcome in various ways and using a non-conventional venue is clearly one of the effective ways of doing this. It is time to dismantle the division between genres in our conscience and embrace the factors such as format and venue of performance as part of our creativity.

---

### 엄숙함을 배제한 클럽에서의 전자음악 공연

신지수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그야말로 음악회들의 쓰나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공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양질의 공연들 중 음악에 종사하는 필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얽혀 있지 않은 음악회나 음악이 아닌 장르의 공연 및 전시는 아예 레이더 망에서 포착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지인들의 음악회만 하루에 여러 개씩 겹치는 나날들이 계속되어서 11월에 들어설 무렵엔 상당히 지쳐 가고 있었다(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니 필자가 무슨 사교계의 인기인 같지만 그냥 음악 전공하고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음악 페스티벌인 닷올림픽과 동시에 열렸던 범음악제랑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모두 페스티벌 형식으로 며칠간 열리는 공연 시리즈였으니, 서울 땅에서 현대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심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가 지나간 직후인 11월 초의 어느 일요일, 홍대 클럽 '타'에선 범상치 않은 공연이 열렸다. 이름하여 'EAM(Electro-acoustic music) concert in the club'으로, 말 그대로 클럽에서 전자음악을 연주하는 콘서트였다.

파격적이고 참신하면서 장난스러움을 유지하는 콘셉트의 포스터가 일단 마음에 들었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본 공연에서도 효과적으로 가시화되었다. 일단 클럽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입구에서 입장료를 현금으로 내고 야광 팔찌를 받은 후 자유롭게 테이블에 앉거나 바 근처에 서서 음악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시작할 때에는 청중들이 조용하고 엄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웃고 떠들기를 권장했으며, 스탠드업 코미디에 버금가는 음악회 해설과 함께 친절한 설명과 농담들이 오고 갔다.

이날 음악회의 분위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디밴드가 자신들의 음악을 친절한 설명과 재치있는 입담과 함께 선보이는 자리와 흡사했는데, 이는 조진욱 작곡가의 천부적인 입담으로 인해 더욱 가능했던 일이었다. 기존의

전자음악 음악회장이 클래식 공연장이었던 관계로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예를 들면 입장과 동시에 야광 팔찌를 차고 병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제공받아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음악이 시작할 때까지 옆 사람과 담소 나누기, 곡 해설을 들으며 폭소를 터트리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음악회가 끝나고 나서도 술잔을 기울이며 음악에 대한 논쟁을 계속 이어가기 등)이 실현되어서 더욱 음악이 살갑게 다가오는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다.

사실 현대음악이 발표되는 많은 음악회들의 분위기는 다소 경직되어 있고, 일반 대중과 호흡하는 느낌이 배제된 채 상당히 조용하고 침체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음악회의 주제나 그것을 실현시키는 작곡과 연주는 교양있는 대중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법한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었다.

"현대음악은 듣기 어렵다... 일반인을 위한 음악이 아니다..." 라는 편견에 도전하는 방법은 사실 참 다양하다. 예전에는 음악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처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현대 순수음악은 어차피 대중을 겨냥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두자는 방식이 있다. 좋게 말하면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음악이므로 그런 것에 쏟을 에너지를 음악을 연구하는 데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적인 친절함으로 무장하여 음악교육이 전무한 사람들도 '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현대음악을 추구하려는 방식이다. 결국 소통의 문제이므로 형이상학적인 어법으로 무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단순한 어법으로 진심을 다해 메시지 또는 감성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둘 수 있다.

현대음악을 퍼트리는 데 또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엄선된 작품을 다수의 리허설을 통해 정성이 깃든 연주로 선보여 그 무시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객석에 퍼트리는 것이다. 최근에 본 프로젝트 21AND의 첫 공연에서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느꼈으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는 창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릴라 식으로 퍼트릴 수 있도록 장소와 상황을 일반적인 음악회장이 아닌 곳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애시당초 "현대음악"이라는 장르 자체를 접할 기회가 있기는커녕 그런 음악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청중들에게는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에, 이것 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EAM concert in the club을 준비한 작곡가들은 서울 시민들이 새롭고 색다른 음악을 기대하며 찾는 대표적인 장소인 홍대 클럽을 전자음악 공연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 이 점에서 '일반인을 위한 현대음악'을 실현시키는 또 다른 방식을 실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장르를 나누는 기준에는 연주 장소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예술의전당에서 연주될 때와 홍대의 클럽에서 연주될 때 관객의 반응과 평가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면,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단지 양질의 음악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선보이는 장소와 형식 또한 실험정신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